

판사 4 vs 검사 7... 공수처장 후보 검증 험로 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별 추천후보

(○ 검사출신 △ 판사출신)

기관	추천위원	추천 후보
법원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최윤식 변호사 ○
법무부	추미애 법무장관	전현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호사협회장	김진욱 현재 선임연구관 △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
		한명관 바른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김종철 연세대 교수	전종민 공존 변호사 △
	박경준 변호사	권동주 화우파트너 변호사 △
국민의힘	임정혁 변호사	김경수 율촌 변호사 ○
	이현 변호사	강찬우 평산 변호사 ○
		석동현 대호 대표변호사 ○
		손기호 유어사이드 공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여당은 판사 야당은 검사 출신 선호...최종 2인 압축 난항 불가피
여 "공수처, 검찰 2중대 안돼"...야당측 석동현 후보 "공수처는 괴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예비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10일 본격화했다. 야당 측 후보로 추천된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는 괴물 기관"이라고 노골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권의 반발을 샀다. '최종후보 2인'을 압축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7명의 추천위원들로부터 11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관련 자료 정리 등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이견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윤식 변호

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전종민·권동주 변호사를,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를 각각 제안했다.

김진욱 연구관과 전현정·전종민·권동주 변호사 등 4명은 판사 출신이고 이견리 부위원장과 한명관·최윤식·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7명은 검사 출신이다. 특히 야당 측에서는 판사 출신만 2명, 야당 측에서는 검사 출신만 4명을 각각 추천하면서 뚜렷하게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상대측 추천후보들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국민의힘으로 지역위원장까지 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본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 의원은 또 "야당 추천은 전부 특수부 출신 검사인데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며 "검사 출신이 공수처장이 되거나 공수처가 검찰의 이종대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라는 것이 제2의 검찰인데 기본적으로 수사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일한 전종민 변호사를 두고는 "진 민주당 성향"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유일한 여성 후보인 전현정 변호사도 형사 경험이 적은 판사 출신인데다 추미애 장관이 추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누가 되더라도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조재연 행정처장이나 이찬희 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위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후보가 신속히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들의 대승적 판단과 협치 정신의 발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 대통령, 신임 대사들에 신임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현욱 주독일대사, 노태강 주스위스대사, 문 대통령. /연합뉴스

'바이든 접촉 넓혀라' 여야, 워싱턴행

與 한반도TF 16일·국회 외통위 내달 14일 출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여의도 정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소속 송영길, 김한정, 김병기, 윤건영 의원은 오는 16~20일 미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참모진,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난 간담회를 한다. 한 전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 주미대사로 일하면서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를 앞두고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족집게 과

외'를 받게는 취지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방미 계획을 수립 중이다. '외교통' 박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는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바탕으로 방미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미단 규모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의 초당적인 방미 일정도 예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는 다음 달 14~18일 미국을 찾은 계획을 다. 국익을 위해 여야가 함께 방미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을 포함해 방미단 규모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내년 초 방미를 제안한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홍남기, 경제위기 극복 매진'

靑, 경제부총리 해임청원 일축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책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도서관 휴관에도 도서 열람 가능' 법안 발의

도서관의 저작권법 저축 부담을 줄이고, 휴관을 하더라도 도서 열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 국회의원은 10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박물관, 미술관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원회 신설 등 박물관·미술관의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예술·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0일 "균형발전 도모 및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명시했다.

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계획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관별 추진실적을 국토부장관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의 유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이웃의 숨통을 트여 주는 민생 정책의 핵심이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주요 목적이 균형발전이 있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진작 등에 기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구)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리조트 매매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 토 지 : 22784㎡(6892평) • 건 축 물 : 4290㎡(1298평) 지상5층
- 총객실수 : 55세대 • 부대시설 : 세미나실, 카페, 매점, 바베큐장
- 매 매 가 : 75억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